

“장애인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쿠팡이츠, 감사합니다”

2022. 1. 6.

“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평범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, 장애인도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.”

[쿠팡 뉴스룸으로 소개된 쿠팡이츠 라이더 아버지의 편지](#)가 많은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. 자폐증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라고 스스로를 소개한 편지의 주인공은 쿠팡이츠를 통해 장애인인 아이가 일을 하고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, 장애인에게도 편견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신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밝혔습니다.

미디어로도 소개된 이 편지에 누구보다 감동한 이들은 바로 쿠팡 직원들이었습니다. 쿠팡 뉴스룸 기사가 소개되자 직원들은 [redacted]와 같이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. 쿠팡이츠 배달파트너 담당자는 직접 아버지와 통화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.

편지의 주인공 이츠라이더의 아버지는 [redacted]며 영상을 통해 직접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. 감동적인 아버지의 편지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

취재 문의 media@coupang.com